

즉시 보도용

2025년 8월 31일

Contact: [lamayornews@lacity.org](mailto:lamayornews@lacity.org)

**ICYMI:** 배스 시장, 제임스 폰틀로이와 함께 사우스 LA 지역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인력 개발-창업-콘텐츠 제작 허브 착공식



*James Fauntleroy, Mayor Karen Bass and Ri-Karlo Handy tour Creators @ Laboratory.*

*Photo Credit: Arnold Turner/Eclipse Content, courtesy of FrontPage Firm PR*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은 그레미상 수상자인 제임스 폰틀로이, 마퀴스 해리스-도슨 LA시의장, 로컬 리더들과 함께 **Creators @ Laboratory**의 착공을 알렸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스 로스앤젤레스 크렌셔 임파워먼트 지구에 위치한, 혁신적인 인력 개발 및 엔터테인먼트 제작 허브다.

배스 시장은 “새로운 일자리와 창의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사우스 LA에 유입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업계 경험을 쌓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로컬 경제와 도시의 정체성의 핵심이며, **Creators @ Laboratory** 는 사우스 LA가 앞으로도 성공한 창작자, 기업가, 사업가들의 중심지가 되도록 보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가수-작곡가-프로듀서이자 **Creators @ Laboratory**의 설립자인 제임스 폰틀로이는 “나 역시 사우스 LA 출신으로서, 이 지역에 창업 프로그램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제작 공간을 만드는 것에 매우 열정적”이라며 “내 비전을 지지하고 사우스 LA에 계속 투자해주신 배스 시장, 해리스-도슨 시의장, 그리고 LA시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랩(Laboratory)을 통해 우리는 외모나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배스 시장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리 카를로 핸디 [Handy 재단](#) 대표는 “이 ‘랩’은 사우스 LA의 창의적인 목소리가 단순히 들리는 수준을 넘어 할리우드에서 더욱 울려 퍼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곳은 업계에서 소외된 인재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LA에서 일자리가 지켜지도록 하는 곳이다.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는 우리 도시의 다양성과 탁월함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믿는 파트너, 리더들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리노베이션된 시설에는 최신식 제작 스튜디오, 팟캐스트 녹음실, 교실, 완비된 사운드스테이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팟캐스트, 애니메이션 콘텐츠, 언스크립티드 쇼,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elevision) 채널 콘텐츠 제작 등 오늘날 창작자 경제에 필수적인 분야를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California Jobs First Los Angeles Collaborative**의 *Catalyst Grant*와 **California Community Foundation**의 지원으로 추진되며, 폰틀로이의 **Laboratory**, **BRIC Foundation**, **Handy Foundation**, **CVL Economics**가 함께 차세대 콘텐츠 제작자, 후반 제작 전문가, 미디어 기업가를 양성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는 로스앤젤레스를 전 세계 창의 산업의 중심지로 더욱 확고히 하며, 이는 배스 시장이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장 시절부터 기여해온 노력이다.

배스 시장은 취임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호하고 제작을 현지에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 **2025년 5월 행정명령 11호**를 발표하여 영화, TV, 광고 제작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용을 낮추고 로케이션 촬영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도시의 대표적 장소들에 대한 접근을 확대했다.
- 업계 리더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제작을 로컬에 유지하기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위원회](#)를 설립했다.
- 각 관련 시 부서가 영화 담당관(film liaison)을 지정하도록 하여 업계에 고객 서비스 지향 문화를 확산하고, [행정명령 8호](#)를 통해 제작과 일자리를 LA에 지키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마련했다.
- 스튜디오 및 사운드스테이지 전담 서비스를 신설해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시 부서와의 직접 지원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7개의 스튜디오와 사운드스테이지가 문을 열었으며, 현재 시내에는 총 **810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사운드스테이지, 미디어 제작, 창의 사무공간이 계획 중이다.

###

제작 유치를 위한 종합 전략을 수행하게 되며, 여기에는 영화, TV 프로그램, 광고 제작을 위한 비용 절감과 현장 촬영 절차 간소화를 위해 배스 시장의 행정명령 8호(ED8) 및 11호(ED11)의 시행 지속도 포함된다.

전,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과 함께 LAPD가 지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지난 2년 간 LA시와 카운티 전역에서 약 100건의 침입 절도를 저지른 절도 조직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지난 금요일 새벽, LAPD는 여러 관할 구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전개, 우리 시와 카운티에서 약 100건의 침입 절도를 저지른 조직을 성공적으로 검거했다.”며 “경찰관과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가족과 비즈니스들에 피해를 입힌 이 조직은 더 이상 우리 이웃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짐 맥도넬 LA 경찰국장은 “이번 검거가 가능했던 이유는 뛰어난 협력 덕분이었다. 여러 부서의 수사관들이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건들을 연결해 202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93건의 절도가 동일 조직의 소행임을 밝혀냈다.”며 “우리는 조직적 범죄와 상습범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지역 사회가 안전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스 시장은 이번 검거가 더 큰 성과의 일부임을 강조했다. 몇 주 전, LA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6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배스 시장은 2주 전 밸리 지역 주민들과 만나, 최근 범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LAPD의 적극적인 접근 방안을 설명했다. 이는 법 집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예방적 해법을 통해 범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배스 시장의 종합적인 공공안전 전략의 일환이다.

올해 초에도 캐런 배스 시장과 짐 맥도넬 LAPD 국장은 살인 사건과 대인 범죄 감소를 발표하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전역의 갱단 감소 및 청년 개발(GRYD) 지역에서 지역사회 폭력 중재자들의 활동으로 2024년 폭력 사건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2023년 대비 GRYD 구역 내 갱단 관련 살인 사건이 45% 줄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56% 감소했다.

###